

中企協중앙회 목포출장소 개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강영태)는 지난날 28일 김용구 중앙회장, 이근경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출장소 개소식을 가졌다.

전남 서남권지역은 최근 전남도청 이전 등 기업 입지여건이 호전돼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창구가 없어 밀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목포출장소는 111개의 중앙회 공제기금 가입업체, 66개의 외국인연수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목포출장소는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 방지와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공제사업자대출과 외국인연수제도 운영,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청년채용 패키지사업, 산업기능요원 관련업무 등 중앙회 위임사업과 지역중소기업 경영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의 (061)281-5720.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남양건설 창립 48주년 기념식

남양건설(주)은 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남양건설 사옥 6층에서 마형렬 회장과 회사원로,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4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남양건설은 중흥동 신사옥 이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사내 장기근속자, 우수사원 등에 대한 표창과 함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11개 업체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창립 48주년을 자축했다.

남양건설은 지난 1958년 창립된 이후 건설업에 주력해왔으며, 지난해 4천682억원의 매출로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가운데 2위에 오르는 등 내실있는 경영관리에 힘쓰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프라 열악

‘지적재산’ 등록 전국 꼴찌

지난해 특허 등록 924건

업체들 지적권 관심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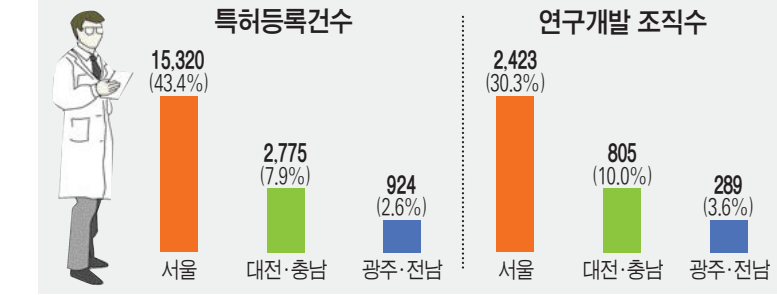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의 연구개발(R&D) 인프라가 미흡해 지적재산권 등록이 전국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출원(건)은 4천672건으로 전국 10만5천250건의 4.4%에 불과했다. 서울은 4만2천261건으로 40.2%, 대전·충남은 6만1천197건으로 5.9%였다.

특히 특허출원 가운데 특허등록(건)은 924건으로 전국 3만5천284건의 2.6%로 전국의 3%에도 못 미쳤다. 서울은 1만5천320건으로 43.4%, 대전·충남은 2천775건으로 7.9%였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등록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데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연구개발조직은



289개로 전국 8천887개의 3.6%였다. 서울은 2천423개로 30.3%, 대전·충남은 805개로 10.0%에 달했다.

연구개발인력은 1만9천235명으로 전국 31만2천314명의 6.2%를 차지했다. 서울은 8만3천642명으로 26.8%, 대전·충남은 3만6천670명으로 11.7%였다.

연구개발비는 4천646억원으로 전국 22조1천853억원의 2.1%로 나타나 열악한 연구개발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서울은 3조9천828억원으로 18.0%, 대전·충남은 3조2천81억원으로 14.5%였다.

특히 참여정부의 중점 육성대상인 혁신형 중소기업수도 519개로 전국 1만1천484개의 4.5%에 그쳤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김광수 시흥 연구지원과장은 “다행히 특허출원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 투자에 관심이 적은 것이 걸림돌”이라며 “상황이 어렵지만 연구개발조직, 연구개발인력 등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개방경쟁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해외 선진기업들이 후발기업에 대한 특허클레임을 자주 제기하는 등 국제적으로 특허경쟁이 본격화되는 것과 관련, 지난달 26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설명회를 가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성실납세세세요”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명래)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제 8회 합평나비대축제 행사장에서 열린세정·국세행정 운영방향 등을 적극 알리고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촉진사업회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소비자물가 불안한 ‘안정세’

광주·전남 유가금융 불구 4월중 2%안팎 상승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소비자물가가 유가금융에 따른 석유류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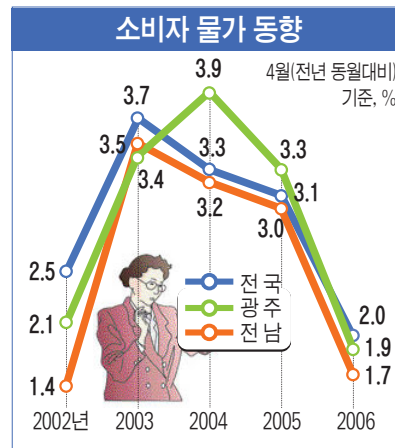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각각 7.0%, 6.9% 상승한 데다 농축산물을 제외한 공업제품 및 서비스 부문 등의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향후 물가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지적이다.

1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19.7%, 117.8%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보다 각각 1.9%, 1.7% 높아진 것으로 전달인 2월에 비하면 나란히 0.1%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농축산물 부문에서의 물가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광주는 전체 농축산물의 가격이 지난해 3월보다 4.5% 내렸으며 전남도 5.8%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석유류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업제품 가격이 1년 전보다 나란히 2.5%나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광주·전남은 또 공공서비스가 각각 3.8%, 3.6% 오른 데다 집세도 각각



1.7%, 0.9% 뛰었다.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3월에 비해 2.0% 상승했다.

또 올들어 지난 달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전남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공 급 증가로 농축산물 가격을 내렸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와 화공제품 등 공업제품의 가격이 올랐다”며 “소비자 물가 기여도가 6% 정도 되는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물가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장례토탈서비스’ 본격 시작

농협은 임종에서 장까지 전 과정을 윈스톱 처리하는 전국적인 장례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장례토탈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국 88개 지역농협에 ‘장례지원단’을 설치,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농협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장례지원단은 24시간 출동대기, 장례절차 상담 및 안내, 저렴한 장례용품 공급, 장의 차량 및 도우미 지원, 사망신고 및 국민건강보험 장례비 신청 등 행정서비스와 임종부터 장까지 장례의 전 과정을 토탈서비스로

전국 88개 지역농협서 임종 등 모든 과정 지원

지원한다. 이용요금은 최저 110만~350만원까지 4개 유형이 있다.

장례토탈서비스 이용을 원하거나 효도장례제 채택을 지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없이 1588-0099(안내 2)로 연락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2005/2006 우수여행상품 인증 선정 (문화관광부 인증상품) 환상의 북해도/아오모리/태평양일출/해저터널 54km(5일) 특가 여행 상품 안내

부동산 광고 모음: 정우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대인부동산, 엑스포공인중개사, 아름다운부동산, 협단월계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부동산 광산공인